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ETF 시장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글로벌 ETF 김진영 jykim@kiwoom.com

RA 조호준 hojun.cho@kiwoom.com



Issue Brief

IPO 흥행에 성공한 'Circle', 이를 놓칠 리 없는 ETF 운용사들

최근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들의 IPO 흥행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6/5일(현지시간) 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Circle(CRCL)이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른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IPO 공모가 31달러 대비 9일 종가는 115.25달러로 마감했으니 3거래일 만에 3.7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보다 앞서 3월 말 IPO를 완료한 AI 하이퍼스케일러 CoreWeave(CRWV)도 공모가 40달러 대비 4배 이상 올랐다. CoreWeave는 2017년 암호화폐 채굴업체로 사업을 시작한 후 2019년 AI 인프라 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현재는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GPU 인프라를 제공하며 고객사로 Nvidia, Microsoft, OpenAI 등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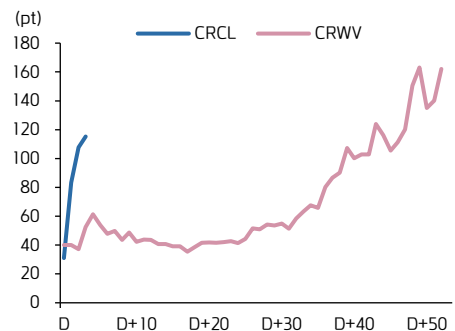
향한 IPO 흥행 소식과 함께 ETF 시장도 분주해졌다. '상상'하는 다양한 전략이 구현 가능한 규제와 인프라를 갖춘 미국 ETF 시장에서는 이미 관련 주식들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준비가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ETF 운용사로 잘 알려진 Bitwise, ProShares가 Circle 주가와 연동된 ETF 출시 제안서를 6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것인데, Bitwise는 Circle 주식 투자와 동시 커버드콜 옵션을 결합해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ETF(Bitwise CRCL Option Income Strategy ETF)를, ProShares는 Circle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ETF(ProShares Ultra CRCL ETF)를 준비 중이다.

늘 분주한 미국 ETF 시장

풍부한 유동성, 낮은 규제 문턱, 자산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 미국의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은 미국이 글로벌 ETF 시장을 선도하도록 이끌고 있다. 미국 시장에는 아직 국내에서는 인프라, 규제에 막혀 출시가 제한되는 다양한 전략 ETF들이 상장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자산 ETF를 비롯해 싱글 스택(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싱글 본드(채권) ETF, 명확한 만기 구간을 타깃하는 Target Duration 채권 ETF, CLO 등 사모대출 기반 ETF, 부분 버퍼 및 레더형 버퍼 ETF 등 셀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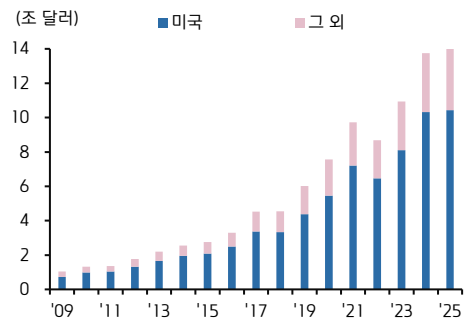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ETF 기초자산 요건 변경, 수탁/회계 기준 재정립, 디지털자산 기본법 개정 등이 선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옵션 ETF 상장을 위해서는 옵션/스왑 비중 한도 조정, 상관계수 규정 및 PDF 내 최소주식 수, 개별종목 비중 한도 완화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어느새 순자산총액 200조원을 돌파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ETF 시장이지만, 바쁘다 바쁜 미국 ETF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제도 유연화와 고도화된 유동성 공급체계 마련, 혁신상품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Circle, CoreWeave IPO 이후 주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글로벌 ETF AuM (미국 및 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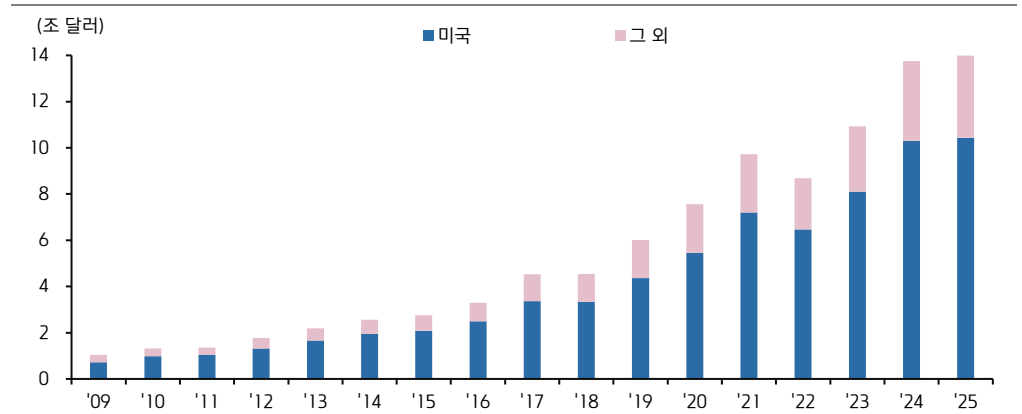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참고자료

(25.05.12) 미국 암호화폐 ETF는 무한변신 중

(25.04.30) ETF, 패시브 to 액티브

글로벌 ETF AuM (미국 및 그 외)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에는 없는 미국 ETF 유형

유형 분류	대표 ETF
디지털자산/크립토	IBIT/BITB (비트코인 현물), BITO (비트코인 선물), BITI (비트코인 숏), BITX (비트코인 2 배) 등
Single-Stock 레버리지/인버스	TSLL (테슬라 1.5x), TSLQ (테슬라 -2x), NVDL (엔비디아 1.5x), NVDS (엔비디아 -1.5x) 등
Single-Stock 커버드콜	TSLY (테슬라), MSTY (스트래티지), NVDY (엔비디아), CONY (코인베이스) 등
Single-Bond	TBIL (미국채 3 개월), UTWO (미국채 2 년), UTEN (미국채 10 년) 등
Target Duration Bond	XHLF (듀레이션 평균 6 개월), XONE (평균 1 년), XTWO (2 년), XTRE (3 년) XFIV (5 년) 등
만기매칭형 TIPS	IBIB ('25 년 만기), IBIC ('26 년 만기), IBU ('33 년 만기) 등
CLO 등 사모대출, 전환사채	CLOA (AAA 등급 CLO), DABS (ABS), BMAX (비트코인 보유기업 전환사채)
ETF + 옵션	TLTW (TLT+커버드콜), LQDW (LQD+커버드콜), HYGI (HYG +금리 스왑), AGIH (AGG+인플레이션 헤지) 등
일부 버퍼형 (부분 버퍼, 100% 원금보호, 월간 레더형 등)	CPSY (100% 원금보호), CBTJ (1 년간 80% 손실보호), UXJA (특정조건 하에서 초과수익 추구, 하방버퍼 x) 등
ODTE 옵션	SDTY (S&P500 ODTE 옵션), QDTY (나스닥 100 ODTE 옵션) 등
페어 트레이딩 옵션	ELON (TSLA 롱 - F 숏), LAYS (NVDA +AMD)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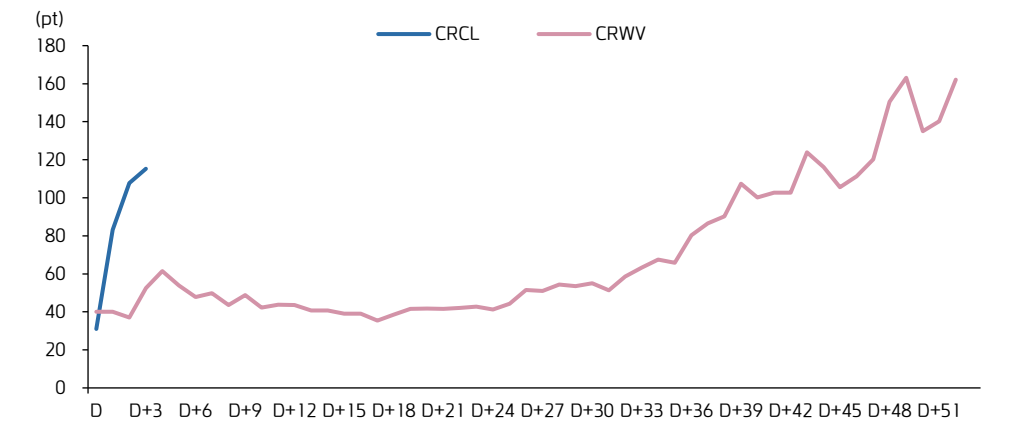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액티브 전략 활용이 높은 ETF 상품

유형 분류	액티브 전략 활용이 유리한 이유	해당 ETF 예시
옵션 기반 ETF	시장 변동성에 따라 옵션 전략(콜/풋, 버퍼, 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JEPI, JEPQ(JPM), PAPR (Innovator) 등
Defined Outcome ETF	옵션의 만기, 목표 손실/수익률 구간 조정이 필요	Innovator Defined Outcome ETFs, Allianz Buffered ETFs 시리즈
전술적 자산배분형 ETF	금리, 인플레이션, 리스크 on/off 에 따라 자산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	PAA (Cambria), NTSX(WisdomTree)
산업장 테마/섹터 전략 ETF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AI,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서는 패시브 지수로 팔로우업이 어려움	BLOK(Amplify), BAI(BlackRock), ARKK(ARK)
고정수익형 ETF	채권 듀레이션, 크레딧, 환율 리스크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 필요	BOND (PIMCO), TOTL (SPDR), FLEX(FlexShares)
롱/숏 구조 ETF(Pair 형 등)	종목 간 상대가치 판단과 리밸런싱은 지속적인 사람의 판단 및 알고리즘으로 조정 필요	TSLAvsF (BattleShares), STKD 100% COIN/NVDA 등
절대수익형/Risk-Parity ETF	벤치마크 없이 하방 방어 + 제한적 상방 전략 목표 -> 액티브 운용 필요	SWAN (Amplify), TCAF (Truist)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ircle, CoreWeave IPO 이후 주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ircle 개별주식 2x 레버리지 ETF (ProShares Ultra CRCL ETF) 상장 신청서

SUBJECT TO COMPLETION—Preliminary Prospectus dated June 6, 2025
 The information in this Prospectus is not complete and may be changed. Shares of the Fund may not be sold until the registration statement filed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s effective. This Prospectus is not an offer to sell these securities and it is not soliciting an offer to buy these securities in any state where the offer or sale is not permitted.

ProShares®

PROSPECTUS

[TICKER] *Ultra CRCL ETF*

자료: SEC,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SEC 6C-11 Rule 내용과 시사점

항목	주요 내용	시사점
일반 등록 허용 (Self-executing Rule)	일정 요건 충족 시 Exemptive Relief (예외 승인) 없이 ETF 자동 등록 가능	법적 비용 및 승인 소요 시간 절감됨에 따라 진입 장벽 낮아짐, 소규모 운용사/화이트라벨 ETF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일일 포트폴리오 공시 의무화	모든 ETF는 웹사이트를 통해 매 영업일마다 전체 보유 종목과 비중, NAV, 시장가격, 프리미엄/할인을 등 공개	투명성 강화 및 괴리율 해소 목적 단, 불투명(active non-transparent) ETF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들은 별도 승인 필요)
커스텀 바스켓 요건 강화	자체 기준 바스켓 사용 시 정책·절차 수립 필요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내부통제 강화 요구 모든 AP에 일관된 정책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화이트 라벨 플랫폼 등도 리스크 없이 다수의 발행자와 AP를 연결
액티브 ETF 적용 확대	Rule 6c-11은 투명한 액티브 ETF에도 적용	다양한 전략의 액티브 ETF 출시 가능성 확대
규제의 일관성	모든 ETF에 같은 규칙(공시, 유동성 관리, 바스켓 요건 등)을 부과	대형 기관의 시장 진입 유도 (예: Goldman Sachs 사례) 모든 ETF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플랫폼 기반 구조의 정착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자료: SEC,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